



## 여행자를 위한 알짜 혜택 모아라! 국내 '시티패스' 열전

유럽과 북미에서는 도시 여행이 어렵지 않다. 많은 도시들이 '시티패스'(City Pass) 혹은 '시티카드'(City Card)라고 불리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여행자에게 최적화된 이 상품은 대중교통 무료 탑승, 주요 명소의 입장권 할인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수년 전 몇몇 도시에서 시티패스를 의욕적으로 내놓았으나 거개가 유아무야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시티패스 형태의 상품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시티패스의 현황을 들여다봤다.

글 박상현 기자

오스트리아 빈은 며칠을 머물러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볼거리가 많다. 선택할 수 있는 여행의 테마도 건축, 음악, 미술, 커피, 와인 등 매우 다양하다. 여행자에게는 화수분처럼 느껴지는 도시다. 문제는 비용이다. 유적과 박물관의 입장료가 비싼 편이고, 명소를 오갈 때마다 드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다.

빈관광청이 제작한 '빈 카드'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상품이다. 이 카드를 제시하면 지하철과 버스, 전차에 자유롭게 올라타고, 제휴를 맺은 210여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8시간 혹은 72시간 동안 유효하며, 가격은 18.9유로와 21.9유로다. 72시간짜리 카드를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3박 4일을 여행할 수 있다.

빈 카드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많은 곳에 들러야 한다. 빈 카드를 소지하면 2.2유로인 1회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호프부르크와 쇤브른 궁전, 알베르티나 박물관에서는 1~3.5유로를 아낄 수 있다. 또 유명한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들의 총평을 종합해 보면 빈 카드 구매 시 보통 5~10유로의 경비가 절약된다고 한다.

### 국내 시티패스, 르네상스를 맞이하다

빈 카드처럼 개별여행자를 겨냥한 시티패스는 국내에서도 10년 전쯤 출시됐다. 서울시는 2007년 2월 '관광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교통편 이용과 명소 입장 시 할인이 되는 여행자 카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는 티머니카드를 발행하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제휴해 '서울 시티패스'를 선보였다.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판매된 이 상품은 선불식 교통카드 기능에 관광지 할인이 추가된 점이 특징이었다. 특히 외국인은 서울시립미술관 무료 입장, 정동극장 10% 할인, 63빌딩 전망대 1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경주에서는 한 여행업체가 2011년 '경주 시티패스'를 발매했다. 쿠폰 북으로 된 경주 시티패스는 최대 할인 폭이 KTX 21%, 테마파크 50%, 레저시설과 식당 20%였다. 또 버스를 타고 교외 여행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시내버스 승차권 5매가 포함됐다.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었다.

그해에는 대전과 부산에서도 시티패스가 등장했다. 대전시는 동춘당공원, 우암사적공원을 돌아본 여행자에게 오월드, 아쿠아월드의 입장료

를 20% 할인해 주는 '시티패스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전 시티패스권은 1만 장이 배부됐다.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국인 전용 '코리아 패스 부산관광카드'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년 전 제작된 시티패스는 오늘날 대부분 유명무실해졌다. 서울 시티패스 플러스 카드는 관광지 할인 혜택이 사라져 교통카드나 다름없게 됐다. 대전 시티패스권은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에 후기가 없을 정도로 판매 실적이 부진했다. 경주 시티패스는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나, 주어지는 혜택이 소셜커머스 업체와 비교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자체, 카드회사, 민간 기업이 '시티패스'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해 3월 트래블루션이 스마트 데스티네이션 사의 '고 셀렉트 패스'(Go Select Pass)를 모델로 한 '서울 트래블 패스'를 론칭했고,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을 앞둔 9월에 신한카드, 프리미엄 패스 인터내셔널과 같이 '인천 시티패스'를 출시했다. 이후 트래블루션은 제주도 전문 여행사인 가치투어와 함께 서울 트래블 패스와 시스템이 동일한 '제주 트래블 패스'를 탄생시켰다. 프리미엄 패스 인터내셔널 역시 인천 시티패스와 혜택이 같은 '케이패스'(Kpass)를 만들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월 코리아 패스 부산관광카드를 보완한 상품인 '부산관광카드'를 출시했다.

새롭게 세상에 나온 시티패스 5종은 오프라인 기반의 선불카드와 온라인 중심의 모바일 카드로 구분된다. 선불카드 형태로는 인천 시티패스, 케이패스, 부산관광카드가 있다. 이 상품들은 최대 50만원을 미리 지불



한 뒤 기프트카드처럼 별도의 카드를 받아 쓰도록 설계됐다.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부산관광카드는 부산 지역에 집중된 데 비해 케이패스와 인천시티패스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 다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트래블 패스와 제주 트래블 패스는 온라인 쇼핑몰을 연상시킨다. 할인 판매되는 명소 입장권과 시설 이용권을 골라 담은 뒤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간 이용자는 약 1천 명으로 홍콩과 대만, 중국의 개별여행자가 주를 이룬다.

시티패스의 호시인 서울 시티패스는 '엠패스(Mpass) 티머니'로 진화했다. 2011년 12월 한국스마트카드가 발매한 엠패스는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정액권 상품이다. 인천 공항철도를 비롯해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시의 간선, 지선 버스를 하루 최대 20회 탑승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도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공항 리무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보강됐다. 또 택시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돋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친구에게 어떤 시티패스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좋을까. 서울을 중심으로 사나흘 정도 머문다면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엠패스가 유용하다. 그리고 서울 트래블 패스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입하면 된다. 반면 부산을 짧게 여행하는 외국인이라면 부산 지역에 특화된 부산관광카드가 제격이다. 만약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다면 할인 제휴 업체가 가장 많은 케이패스가 적당할 듯싶다. ●

구분	케이패스	인천 시티패스	엠패스 티머니
주요 혜택	- 관광지, 공연, 음식, 쇼핑, 미용, 숙박 등 200여 곳에서 5~60%할인 - 교통카드 기능 추가 가능	케이패스와 동일	- 인천공항철도, 서울(수도권)·인천 지하철, 서울 간선·지선·마을버스, 제주 시내·시외·공항 리무진 버스 일일 최대 20회 탑승 - N서울타워, 공연 '사랑하면 춤을 춰라', '점프' 등 할인
이용 방법	- 선불카드(최대 50만원)를 구입한 뒤 신용카드처럼 사용 - 협약처에서만 할인 혜택 제공	- 선불카드(최대 50만원)를 구입한 뒤 신용카드처럼 사용 - 협약처에서만 할인 혜택 제공	- 선불식 교통카드처럼 사용, 가격은 1/2/3/5/7일권이 1만/1만8천/2만5천500/4만2천500/5만9천500원(달러어는 2일권만 있음) - 카드 보증금 5천원, 반환 시 수수료 500원 공제 - 티머니 충전 후 택시, 상점 이용 시 결제 가능
구입처	-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터내셔널 택시 데스크 - 서울역, 명동, 홍대입구의 프리미엄 트래블 센터	-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터내셔널 택시 데스크 - 서울역, 명동, 홍대입구의 프리미엄 트래블 센터 - 인천 시내 일부 신한은행 지점	- 인천공항 1층 관광안내센터 - 제주공항 관광안내센터
판매 대상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제작 회사	프리미엄 패스 인터내셔널, 신한카드	인천도시공사, 프리미엄 패스 인터내셔널, 신한카드	한국스마트카드
구분	서울 트래블 패스	제주 트래블 패스	부산관광카드
주요 혜택	- 서울의 명소 30여 곳에서 최대 50% 할인 - 닌타 VIP석 20%, 에버랜드 패키지 30%, 토아키노 30% 할인	- 제주도의 명소 30여 곳에서 최대 50% 할인 - 서귀포 잠수함 13%, 소인국 테마파크 22%, 메이즈랜드 17% 할인	- 부산의 음식점 16곳, 관광지 10곳, 게스트하우스 4곳 할인 - 부산 시티투어 20%, 시라미프 부산 아쿠아리움 20% 할인 - 교통카드 기능 추가 가능
이용 방법	- 웹사이트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명소의 이용권을 미리 구매한 뒤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 웹사이트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명소의 이용권을 미리 구매한 뒤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 선불카드(최대 50만원)를 구입한 뒤 신용카드처럼 사용 - 협약처에서만 할인 혜택 제공
구입처	웹사이트( <a href="http://seoultravelpass.com">http://seoultravelpass.com</a> ) 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a href="http://jejutravelpass.com">http://jejutravelpass.com</a> ) 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부산 시내 관광안내소, 김해공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
판매 대상	외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제작 회사	트래블루션	가치투어, 트래블루션	부산시, 롯데카드